

‘지하경제 양성화’ 시민감시단 뜬다

종교·자영업단체 등 1000만 회원 25일 출범

부정유통·세금 탈세·불량식품 6월부터 고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은 150여개 직능·자영업자 단체, 종교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이하 감시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회원

1만 1000여명에 이른다.

감시본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지정 결의대회 및 시민감시단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자영업자나 종교계, 문화계 등에 대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와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세금

자진납부운동도 추진한다.

또 감시본부는 탈세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원 1000명을 양성한다.

시민감시단에는 목사, 스님, 연예인, 주류업자, 담배 판매인, 유흥업소 사장, 자동차 정비업자, 음식점 사장, PC방 사장, 숙박업소 사장 등 우리 사회에서 탈세 성향이 높은 업종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다.

이들은 직종별로 부정 주류 감시, 불법 영업 감시, 사회 질서 감시, 공정거래 감시 부문으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업종의 불법·편법적인 탈세행위를 점검 감시한다.

부정주류감시팀은 가짜 양주 제조 및 유통 행위, 주류 세금 탈세 및 탈루

행위를, 불법영업감시팀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사회질서감시팀은 불법 선거 운동, 고액 불법 과외,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확인 및 교습수 운영 등을, 공정거래감시팀은 불공정 거래행위, 고금리 사채업, 도박, 주가 조작, 저작권 위반, 공무원 뇌물 등을 파고든다.

감시단은 내달부터 감시활동에 들어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6월부터는 탈세 현장을 적발하면 곧바로 관련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감시본부는 감시

단을 매월 500명씩 추가로 양성해 연말까지 규모를 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호석 감시본부 상임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부의 정책과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각 계각층이 나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인 3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7.6%), 일본(8.8%), 영국(10.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어린이에 신발을”

광주롯데백-어린이재단 30일까지 캠페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0일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아프리카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1일 “코끼리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상피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랑의 신발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피병은 발을 거대하고 딱딱

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세계에서 최소 400만명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신발을 신어 발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객이 재활용할 수 있는 헌 신발 두 켤레를 가져오면 새 책으로 교환해 준다. 기부한 신발 가운데 1000 켤레를 선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아프리카 빈곤층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농협광주유통센터 하나로클럽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박종수 전남농협 본부장(맨 왼쪽)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시금치 등 신안산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거래 일시 중단

14일 새벽 1시~오전 11시 전산업그레이드

광주은행은 11일 전산업그레이드 실시로 인해 오는 14일 새벽 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CD / ATM기 이용 ▲인터넷뱅킹, 모바일 및 스마트폰뱅킹 ▲체크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은 필요한 현금, 수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중 예도 신용카드 구매, 고객센터를 통한 각종 사고신고는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보다 더 안정되고 신속한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에 ‘로컬푸드 직매장’ 첫 개장

수완지구 농협광주유통센터 하나로클럽

전남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광주에 처음으로 개장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1일 농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상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농협광주유통센터 하나로클럽에서 개장했다고 밝혔다.

개장 첫날인 이날부터 14일까지는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시금치,세발나물,땅콩,고사리 대파 등 20여종의

농특산물을 10~20%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앞으로 각 시·군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우수 농산물을 연중 격주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으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

인 농업인에게도 유통 비용만큼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양측이 상생하는 운동이다.

전남농협은 또 오는 28일 지역본부가 위치한 무안 하나로클럽 남양점에 서도 ‘로컬푸드 야외장터’를 개장할 예정이다.

박종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이라며 “안전한 먹거리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꾸며 보시길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광주 아파트값 상승세

중소형 아파트 인기...전국 3주연속 상승

한국감정원이 11일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10%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상승세를 탄 반면, 전남은 내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등 광장세가 꺾여졌지만 역

신도시 인기 소형 아파트가 으뜸세를 나타내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지역별로 경북(0.32%), 대구(0.27%), 세종(0.25%), 서울(0.16%), 광주(0.15%), 충남(0.13%) 등 지역이 오른 반면 전남(-0.04%)은 내렸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월7일 첫 조사 이래 48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구(0.54%), 세종(0.31%), 경기(0.27%), 대전(0.24%), 경북(0.22%), 충남(0.21%) 등이 강세를 보였다.

“태풍에 깨진 창문도 보상해야”

금감원,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손 들어줘

광주의 한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 두 장이 깨졌다. 지난해 1월 종합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내부압력 상승 등 내부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과열(破裂)’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거절한 보험금 전액을 주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은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도 파열은 원인과 상관없이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주장처럼 내부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결론이다.

엔저 피해기업 특례보증 전남신보, 올해 말까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노용훈)는 11일 최근 엔저(低)가 장기화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돼 수출둔화와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엔저로 피해를 입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전자·섬유 관련 제조기업이면 가능하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2분의 1까지 적용하고 보증비용을 90%까지, 보증료를 0.2%p 차감해주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